

# 나주교육청,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문화형성 위한 교육과정 관내 초 3학년부터 중 1학년 대상, 10월까지 총 95회 운영

나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체험하는 2022.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를 4월 ~ 10월까지 총 95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특화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올해 나주동강중 등 관내 초·중 21개교 1972명이 참여하는 '비단고을 역사탐험대'는 지역 유관기관의 학예연구사와 학부모지원센터 해설사가 동행하여 사성문, 영산포 근대거리, 나주학생독립기념관, 북암리고분전시관, 불회사 등 지역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수업으로 진행된다.

나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안남초 4학년 학생들은 북암리고분전시관 체험활동 후 "북암리고분이 두혈이라는 마을을 다스린 사람의 가족무덤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한 고분 안에 20대인 여동생과 40대인 오빠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두 사람의 사망 시기가 다르고 남매임에도 함께 묻히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나주교육지원청 박윤자 교육장은 "지역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처 발굴을 통해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과 함께 하는 나주교육지원청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무안교육청, 미술·공예 통해 '마음치유' 지원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학생들의 자아 성장과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4월~6월 매주 목요일, 학교로

찾아가 실시하고 있다.

이번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미술 및 공예를 통해 전반적인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여 긍정적 자존감을 함양과 건강한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무안Wee센터는 일상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작품 제작을 통해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재미있고 행복한 열린 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 전남교육청, 올해 '친환경생태학교' 180교로 확대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생태학교 운영을 더욱 확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00개 학교가 참여한 친환경생태학교에 올해는 생태환경실천교육 부문에 146교, 탄소중립중점교육 부문에 18교, 학교순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 16교 등 총 180교가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 온라인 설명회 갖고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지원방안 모색

이들 친환경생태학교는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생태환경실천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한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은 22일 청사에서 2022학년도 친환경생태학교 운영에 따른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생태환경실천 및 탄소중립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 생태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환경생태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생태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 교사들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 생태환경실천교육 운영방안 △ 탄소중립중점교육 운영방안 △ 2021년 생태환경실천교육 우수사례 △ 2021년 탄소중립중점교육 우수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친환경생태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예당고 김덕환 교사는 "친환경생태학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운영함으로써 학교 내 탄소중립을 한발 앞서 실현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함평교육청, 전남직업능력개발원과 MOU체결

함평교육지원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과 지난 22일 초·중·고 학생의 성공적 장애이해교육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보다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급 장애이해교육 지원▲특수교육대상자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 및 교육·훈련 제공▲전남직업능력개발원 직업체험관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함평지역의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에 힘쓰고자 한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의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직업교육



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초·중·고 통합학급 및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여 함평지역에 장애공감문화가 널리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함평=김평춘기자

## 순천대 '국가중심국·공립대 대학원 현황과 현안' 정책세미나 개최

### 전국 14개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대학원장 참석

순천대학교가 최근 이틀간 대학 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대학원 현황과 현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개 국가중심국·공립대 대학원들이 처음 여는 정책세미나로, 지난 1월 제주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8개 국가중심국·공립대 대학원장들이 모여 순천대 개최를 결정하였다.

정책세미나에는 전국 14개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대학원장들이 참석하며, 고영진 순천대 총장과 송진규 전국국립대학교 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소라 교수가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대학원 현황과 현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오양기 목포대 대학원장, 송희원 안동대 대학원장, 오경식 강릉원주대 대학원장, 이윤철

한국해양대 부총장이 토론을 진행 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정책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국가중심국·공립대 대학원 관련 현황과 현안이 처음으로 조사되고 발표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국가중심국·공립대 대학원 간 네트워크와 정책개발이 정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